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2, 로마의 출현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2, 로마의 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시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웅을 떠났을 때, 이 경우에는 안티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유대에서 패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의 살로메는 아들 헤라클리우스 2세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리스토틀루스 2세인 그녀의 작은 아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포위하고 결국 헤라클리우스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야심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담담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틀루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리우스가 은퇴하고 남은 생애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약간의 좋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는 왕좌와 대제사장직을 포기했습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두매 땅으로 물러갔습니다.

왜 이두메아인가? 글썄요, 그를 유대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리스토틀루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뢰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두메아에서 멋지고 조용한 작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시 이두매 총독이었던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것은 조용하고 좋은 작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매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John Hercules 시대에 개종하도록 강요된 사람들의 계열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꽤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라클리우스 2세의 도착을 이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것은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진지하게, 내 말은, 정말 아리스토틀레스가 당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위협이 돼요.

당신은 그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곳에 안전하게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모든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암살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구석구석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Antipater가 말한 내용에는 아마도 일부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틀레스는 매우 야심찬 사람이었고 헤라클리우스는 그의 권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리우스는 결정합니다. 음, 이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안티파트로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유대인의 지도자로 다시 임명하고 아리스토틀레스를 그곳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Antipater는 Heraclius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용병들은 헤라클리우스를 다시 왕좌에 앉힐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왕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리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틀루스가 갇혀 있는 신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결국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작은 병력으로는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가 동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세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원래 소아시아 주변 북쪽 지역에 있는 폰투스 지방의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는 반란의 가능성을 낮추고 이곳을 로마 세력의 속주로 추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잔재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서로를 찢어 버리고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지, 누가 후계자인지, 누가 합법적인지, 누가 합법적이지 않은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시리아의 문제를 자신들의 사업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가 이 시대에 합당한 이유 없이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를 쉬운 무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시리아가 파르티아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파르티아를 두려워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컷습니다.

파르티아는 강했다. Parthia는 이전에 그들과 충돌했습니다. 만약 파르티아가 들어와서 시리아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동쪽의 로마에 약간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인, 시리아 제국, 셀레우코스 제국도 그들의 영역에 추가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우스와 아리스토틀루스는 자신들의 작은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더 나은 주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틀루스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성격과 설득력 등 때문에, 헤라클리우스는 실제로 후계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폼페이우스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로마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로마라는 도시는 기원전 625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로마가 건국된 이유와 건국 과정에 관해 다양한 전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마르스와 님프의 아들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암늑대에게 간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두 소년이 암늑대를 간호하고 있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가 이러한 신성한 기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도시는 일종의 신성한 기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 100년 이상 동안 로마는 왕에 의해 선출되었고 선출된 왕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일종의 용어 모순과 거의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은 대개 선출되지 않습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역할에 따라 태어나지만 로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 귀족 계급 중에서 왕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년에 그들은 정부 형태를 바꾸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선출된 상원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귀족들은 자신들이 상원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정부 형태는 어떤

종류의 폭군이나 전제군주, 또는 어떤 종류의 성직자가 운영했던 정부에 비해 매우 계몽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지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로마라는 도시가 그들의 필요나 야망을 담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과 정복하고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서 그들은 일단 누군가를 정복하거나 그들과 협상을 하면 그들이 정복한 도시에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로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도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당신은 로마 도시 자체에 사는 시민의 모든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표를 얻을 수 있고, 공공 자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도시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동지애가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 후에 카르타고 출신의 한니발이라는 이름의 동료가 그들 사이의 수많은 갈등 끝에 로마를 향해 행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도시 중 일부를 반란에 동참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너무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는 이점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원전 210년까지 계속된 방식입니다. 기원전 210년, 로마는 침략 등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던 시칠리아 섬의 도시를 합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칠리아를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에 부여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시칠리아에도 확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같은 수준의 정교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칠리아 섬을 지역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방으로서 그들은 군사적 리더십에 의해 통치되었고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권리를 갖지 못했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인들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제국의 여러 세력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지역적 문제가 있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일을 정리했을 때 그들은 정리된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폼페이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공화국에서는 주로 장군들이 지방을 통치하게 된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폰투스를 로마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동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시리아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과 로마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리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 유대에서 사절단이 도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우리를 위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형제들 사이에 약간의 우호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실제로 로마와 약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가 아니라 약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처음으로 로마에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이 서로 먼 사촌이었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돌려받았는데, 그 내용은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아는 한 로마인들과 형제애의 계약을 맺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았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문서에 더 가깝습니다.

그거였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시리아에 도착합니다. Hyrcanus와 Aristobulus는 모두 그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동맹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일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폼페이우스가 누구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폼페이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로 여기 시리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결국,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글썄, 아리스토틀루스는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인들이 그 도시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를 대비해 그 도시를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음, 폼페이우스의 반응은 당신이 예상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폼페이는 시리아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여기서 이 작고 불쾌한 신생 기업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도시를 포위하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기원전 63년 속죄일에 성전 문을 부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기도를 중단하기를 거부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군대는 그들을 제단에서 베어버렸습니다. 더욱이 폼페이우스는 지성소 자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번개를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나귀 머리라던가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이토스를 대제사장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종교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전에서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반면에 제가 앞서 언급한 사해 두루마리(4QMMT)에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악마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매우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틀로스와의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이 이상한 이유로 심즈처럼 유출되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끊깁니다. 어쩌면 보안 수준이 낮은 감옥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쉽게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틀루스와 그의 아들들을 가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라클레이토스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후, 로마서에 따라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도시에 들어간 후, 내가 말했듯이 그는 여기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비니우스(Gabinius)라는 동료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가비니우스는 그의 장교 중 한 명입니다. Gabinius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길고 유서 깊은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로마 정치의 다양한 측면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좀 핑키해요.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Gabinius, 저는 저 사람들이 잔디를 깎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괜찮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내 노트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따라서 아리스토틀레스가 로마로 끌려간 후, 헤라클레이토스가 대제사장직에 임명된 후, 로마인들은 그의 시민권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한동안 매우 유능한 정치가였던 가비니우스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금을 납부하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반적인 일들을 확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행정이나 그런 일에 관해서는 로마인들이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ntipater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Antipater는 계속해서 Heraclitus를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안티파트로스를 꽤 유능한 정치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행해진 일 중 하나는 유대가 그리스인이 거주하던 영토, 즉 아리스토틀레스와 알렉산더 유니우스가 정복한 영토 중 일부를 해방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시들이 유대인 통제에서 풀려난 후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교외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지가 생겨나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자원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인의 특권, 즉 로마인에 의해 통제되고 보호되는 특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헤라클레이토스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말했듯이,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고 예루살렘의 명목상 권위를 가진 안티파트로스와 로마인들이 실제로 이 시점에서 총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트로스, 왕좌 뒤에 있는 권력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인지를 두고 많은 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급했듯이 로마인이여,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로마 감옥은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틀로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는 기원전 57년에 로마에서 탈출하여 유대 전역에 걸쳐 여러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아주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렉산더를 대제사장이자 지도자로 삼는 것을 선호하는 세력이 예루살렘 자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장군 가비니우스는 이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글썄, 그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본질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무능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실제로 여전히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비니우스는 그를 구출하고 유대 땅과 지방에 대한 일종의 개혁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비니우스의 개혁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비니우스는 로마제국 주변의 여러 정책을 개혁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 중 일부는 알렉산더를 예루살렘에서 구출한 후 로마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대제사장으로 남도록 허락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다섯 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의회가 주어져 그 입법자가 되게 하고 각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귀족 중에서 뽑힌 자라 또 다른 탈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비니우스에 의해 국가가 재편성된 후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 아리스토틀로스 자신과 로마에서 탈출한 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군대를 일으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가비니우스는 다시 한 번 반란을 진압해야 하고 아리스토틀로스는 로마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안티고누스는 유대에 남아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안티고누스가 유대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분명히 그의 어머니, 안티고누스의 어머니는 가비 니우스에게 그가 남을 수 있도록 간청하고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로마인들이 안티고누스가 유대에 남아 있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놀라운 설득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후, 알렉산더는 또 다른 군대를 모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반란 역시 로마인들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내 우리는 누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계속되는 투쟁을 봅니다.

대제사장인 히르카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직자 뒤에 있는 일종의 권력자인 안티파터(Antipa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아리스토틀로스(아리스토틀로스)와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에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로마 남북전쟁.

지방에는 각자 권력을 놓고 자신의 영토와 소유물을 늘리기 위해 경쟁하는 다양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영토는 돈을 의미했고,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하고 있던 이런 종류의 캠페인을 통해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원로원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장군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장군들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군대가 로마로 들어와 로마 장군들이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몇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상원은 장군들이 군대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장군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서로에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두정(triumvirates)이라는 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각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우리 영역에 머물고, 당신도 당신의 영역에 머물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두정치는 폼페이우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듣게 될 것이며, 크라수스라는 이름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장군은 첫 번째 삼두정인 이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죽자 최초의 삼두정은 해체되었습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들 각자는 매우 야심적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물을 늘리는 과정에서 서로를 방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군들 간의 전투와 전쟁이 발생합니다.

지방의 장수들이 서로 싸우면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전체 기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주제 중 하나는 이 장군들이 서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갖추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금을 어디서 얻나요? 그들은 지방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처음에는 폼페이우스를 지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폼페이우스는 이미 동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마와도 같았지만 결국 폼페이우스는 암살되었고, 이로써 유대는 폼페이우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환심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역에 있는 장군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유대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내전에 개입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집트를 통치할 사람을 놓고 전쟁에 나간 한 형제와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도

우연히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에서 상황이 이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파라오가 종종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여동생과 결혼했던 고대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동일한 관행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매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있고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있는데 그들 각자는 왕이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글썬요, 이집트의 내전은 로마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량을 이집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내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왕좌에 남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이 이 큰 양탄자를 들고 행진하러 올 때 프톨레마이오스와 함께 청중을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깔개를 펼치고, 이 깔개 안에는 클레오파트라 외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즉시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위대한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와의 만남을 위해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이 결코 트럼프를 바랄 수 없는 방식으로 트럼프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감옥에 갇히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글썬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 프톨레마이오스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일어나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궁전 안에 갇혀 있고, 현재 그의 군대는 그를 이 문제에서 구출하기에는 부족하다. 글썬요, Antipater는 기회를 봅니다.

나바테아 와 다른 지역 에서 한 무리의 용병들을 데려왔고 그들은 이집트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히 쉬운 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이사르를 그가 있는 궁전에서 구출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갇혀. 그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안티파테르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헤라클리우스는 또 다른 칭호를 얻습니다.

그는 Ethnarch라고 불립니다. 자, 이 제목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사실 그것들은 때때로 중요성을 상당히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똑바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검찰관은 군사 직위에 더 가까운 것 같고 Ethnarch는 시민 직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 게다가 안티파터의 아들인 파사엘 과 헤롯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헤롯 총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며 물론 헤롯 총독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지사로 명명됩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자기 지역으로 삼았으나 헤롯이 즉시 문제를 일으킨다.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되자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은 무자비하게 폭동을 진압하고 갈릴리 사람들의 무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유대인 산헤드린은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느꼈고 이 젊은이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의 행동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산헤드린 앞에 나타나도록 그를 불렀습니다. 헤롯은 산헤드린 앞에 나타나기로 동의했고, 산헤드린 전체를 죽이려는 의도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티파터는 그를 통제할 수 있었고 그에게 "안돼, 아들이, 그러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훌륭하고 간단하고 쉽게 플레이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산헤드린에 가서 산헤드린을 설득하여 헤롯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고발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건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고, 산헤드린은 마지못해 그렇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열정과 큰 야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모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유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호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 조금 알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람들에게 행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헬레니즘과 그리스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강요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대교를 로마 제국의 보호 종교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개종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 시점에서 로마 왕실 숭배는 대부분의 지방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도시 한가운데에 로마의 정신인 카이사르에게 제단을 쌓고 카이사르에게 희생을 바치려는 헌신과 팀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시로 간주되었습니다. 글썄, 유대인들은 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황제의 유익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반란이 일어나서 그 제물을 끊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교가 이제 보호받는 종교라는 사실은 조금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보도 자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실제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필로는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고 주장했을 때 칼리굴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호받는 종교입니다. 이봐,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칼리굴라, 그것은 일종의 기괴한 황혼 시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칼리굴라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로마 전역을 보여주고 그가 말하길, 내가 이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유대인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쨌든,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습니다.

글쎄, Julius Caesar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 현재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제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다른 두 장군인 Cassius와 Mark Antony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건 아직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공화국이죠. 그들은 지방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로마 자체의 통제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상원의원 모두에게 칼에 찔려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강력해졌고 상원은 그들을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가 황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고 상원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쳐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Cassius와 Mark Antony는 그들 중 누가 로마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43년, 카시우스는 마르크 안토니우스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카시우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Mark Antony의 적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Mark Antony는 다시 말합니다. 이봐,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원전 43년입니다.

기원전 43년은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3년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독살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헤롯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암살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해 로마 총독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자신의 힘도 이 사건으로 인해 커지기 시작한다. 마크 안토니우스(Mark Antony)가 카시우스(Cassius)를 물리치고 기원전 42년경에 시리아-팔레스타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캠페인 때문에, 그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카시우스를 이기기 위해 사용한 돈의 양 때문에 마크 안토니는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Mark Antony는 다시 한 번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전혀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가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클레오파트라 아가씨와 얽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Antony가 처음으로 Cassius를 물리쳤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동쪽의 새로운 군주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금으로 도금한 바지선과 금실로 장식된 돛을 갖고 있었고, 자신도 여신 아프로디테로 분장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님프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Mark Antony를 만나러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다가오는 배가 햇빛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둘 다 정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런, 이런, 돈 좀 보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이 여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Mark Antony는 일종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상한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

그는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애인이었던 이 여자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그녀의 거대한 전시를 하기 위해 은행을 거의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크 안토니(Mark Antony)는 자신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 클레오파트라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리스토틀로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여전히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파르티아인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는 데 필요한 군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인들은 우선 로마에 명든 눈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그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르티아 용병 그룹, 내려와 예루살렘까지 그를 동반하는 파르티아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에게 징징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파르티아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원전 40년에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히르카누스는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왜 그의 귀를 잘랐을까요? 이런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흠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를 잘라서 그들은 히르카누스가 다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티파트로스의 둘째 아들 파사엘은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헤롯에게 이 파르티아인의 침략 때문에 도망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Phasael 자신이 자살합니다. 그는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바위에 머리를 박는다.

그리고 이로써 그는 파르티아인들의 고문을 면하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크 안토니우스를 만나 빚을 청산하고 유대로 돌아가 조국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고누스는 지금 유대의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기원전 40년부터 37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가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아리스토불루스의 아들이다.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가 바로 그 혈통에 속합니다. 안티고누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손자 중 한 명이 통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 자신은 하스몬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아내는 하스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하스모니아 가계를 거쳐 헤롯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다시 이 지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따르는 그의 아들에게도 통치할 꽤 중요한 영역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Hasmoneans 이야기의 끝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Hasmoneans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정말로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영웅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서는 하누카와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후기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어느 역사책에서 이런 인용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스몬 왕조는 문자 그대로 유대교를 멸종으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고 입이 썩 벌어졌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나요? 실례합니다? 아니, 곳곳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대교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특정 유대교 브랜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종교를 버리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중심 도시이자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나요? 아마도.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하스모니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 전체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전통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의 신성함입니다. 반란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안식일을 안식일로 결정했습니다. 마베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알잖아? 사독의 제사장 계승.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모든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전통을 버리고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실제로 성경 자체에 뿌리를 둔 전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독의 가문과 족속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선언하신 곳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다윗 왕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갖게 될 것이며 그 가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틔레스 시대의 하스모니아 왕조는 스스로 왕이라는 칭호를 주장함으로써 그 전통을 버렸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그토록 반대했던 하스몬 왕조에 관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들 각각은 그리스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권력 과시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 적을 대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적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가문의 이야기, 특히 그들의 말년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꽤 유명한 책의 대사를 떠올렸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동물들이 농장을 장악하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높은 원칙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잠시 후, 돼지들이 자신의 힘과 지배력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돼지들은 농장의 다른 동물들을 인간에게 팔아 넘깁니다. 돼지들은 인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리고 농장에 남아 있던 동물들이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생물들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사람으로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 생각엔 하스모니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돼지가 헬레니즘 세계와 셀레우코스 제국의 정치적 음모에서 훨씬 더 편안해짐에 따라 하스몬 왕조의 변화에 대한 비유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입니다. 세션 12, 로마의 출현입니다.